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중현교회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성찬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2007년 제2차 성찬식

오늘 1부~5부 예배 시



현제 연일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2.21~3.31)를 통해서 중현의 성도교구의 성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사순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총을 사모하기에, 중현교회는 제1차 청지기훈련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렘 34:26)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 중에 거행되는 오늘 성찬식은 더욱 큰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정점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골 2:15) 날카로운 가시로 역여진 가시관을 쓰신 채 재촉에 맞아 이곳 저곳 움푹 파인 살, 이룩고 손과 발에 박히는 대못! 죄인 중의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순간 그 분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시는 보혈의 은총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십자가의 증인

이번 주(7일) 수요일 2부 예배 시,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선교는 지상명령입니다.(마 28:18~20)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중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현재(3월 1일 기준) 26개 팀, 233명이 선교를 마쳤습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중인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선교의 열기가 계속 되도록 우리는 십자가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고전 2:2)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이 모아질 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선교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고후 13:4) 오늘 찬양예배 후에 제4차 CMTO 훈련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마지막 훈련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이번 주 수요일 2부 예배 시에 있는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땅끝 열방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결단하는 중현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8)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금요찬양집회)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갈 2:21)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찬탄한 삶의 진리를 공부하였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핵심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구속함을 이루게 되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은혜는 단적으로 말하여 자기의 노력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기위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엡 2:8,9; 갈 3:1,3) 동시에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또 은혜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심을 확언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삶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은혜는 자신의 노력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또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심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들은 그만 자기의 의의 삶으로 돌아가 은혜를 떠나고 말았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구원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찬탄함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고 또 꾀어서 넘어지게 만든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반대하고 반박하지만 믿는 자들의 문제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있다.(히 2:1~4; 마 22:5)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무서운 죄이다. 이 큰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하신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구원 곧 은혜는 인간의 모든 노력(지혜, 지식, 판단력)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가지 없는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만든다.(갈 3:4)

성령으로 시작된 후에 계속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이 무익한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가 노력할 때에 이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되므로 죄임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복된 삶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삶을 살도록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때에는 분명히 죄가 작용한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요일 1:9) 그때에 다시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찬탄하게 역사하신다.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겠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사색 전체를 담은 절문이다.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였다.(빌 1:6) 몸체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이 없다고 한다.(요 3:3) 거듭나지 않고 거듭난 자의 삶을 내 힘으로 살려 하니까 이곳 저곳에서 내 의견, 자랑, 명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리를 섬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눅 1:30,31,37,38)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며 그녀가 잉태할 것과 이름을 알려주었고 마리아는 이를 받아들였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마리아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요 3:6; 갈 4:19)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하게 하신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였고 이를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뻐하였다.(골 1:24,27)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완성시키시며 임종시켜 주신다.(막 6:2; 갈 3:5; 고전 12:6,7,10; 빌 2:13) 이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갈 3:6)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태어난 자이다.(수 24:2)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을 때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다.(창 12:3, 18:18, 26:4, 28:14) 단기간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믿음의 기적에 자신을 연가하게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요 8:56)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있는 열방을 축복하셨다.(갈 3:7~9) 이제 바울은 확신함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확충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열방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열매의 기적을 능가할 다른 기적은 없다. 이 기적이 곧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여 준다.(엡 4:16~19) 분명하게 이는 믿음과 사랑의 기적이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다.(갈 5:22,23)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서 이루시며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고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찬탄하게 이루신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곧,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불공하기를 원하는 것이다.(엡 3:21) 아멘.

MAN OF SORROWS

***“He was despised and forsaken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 He was despised,
and we did not esteem Him.”(Isaiah 53:3)***

Everyone experiences sorrow because of sin. It is an unavoidable part of life on earth. From the moment you are born, you begin to cry, and at the moment of your death, your last breath is a sigh, and in between are times of grief. Jesus Christ came down from heaven to bear our sorrow. During His ministry to this world He experienced great sadness. As the Son of Man, the Bible describes Him as “a man of sorrows”. As the Son of God,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He is able to comfort us in our sorrows. Jesus knows our pain because He subjected Himself to suffer the consequences of all sin. No one can experience deeper or greater sorrows than Jesus because He was sinless. No one can find deeper or greater comforts than in Jesus, “For just as the sufferings of Christ are ours in abundance, so also our comfort is abundant through Christ.” (2 Cor. 1:5) As a Christian, you will undoubtedly suffer more hardships than non-believers, but unlike non-believers, you will also experience heavenly comfort.

Jesus was “despised and forsaken of men”. He came to this world to save God’s people, but most of them rejected Him. Rejection brings deep sorrow. Jesus’ love was unwanted. His truth was discarded. His message,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was rejected. John 1:11 says,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God’s people cried and prayed for the Promised Messiah, but when He came they did not accept Him. Jesus told His hometown people,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hometown and among his own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hold.” (Mk. 6:4) Can you imagine the great sorrow of being rejected by those closest to you? Not only that, but the religious leaders of God’s people mocked Him as He hung on the cross (Mt. 27:41), and as He was dying those passing by were hurling abuse at Him. (Mk. 15:29) Have you suffered the sorrow of rejection? Jesus knows how you feel and He can take care of it. He will bring you comfort.

Jesus was a man “acquainted with grief”. His special life was filled with real anguish. When your dreams are destroyed, family broken, and loved ones lost, you experience grief. God’s people did not listen to His kingdom of God secret, is not that real grief? Luke 19:41-44 say, “When He approached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over it, 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throw up a barricade against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and they will level you to the ground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in you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your visitation.’” Jesus knew grief. Hebrews 4:16 says, “Therefore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You can bring your deepest grief to the Lord, and He will comfort you. Paul experienced a severe thorn in the flesh, and Jesus said to him,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2 Cor. 12:9) God’s grace is more than enough to handle your worst problems.

Jesus was a man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 He experienced true loneliness. He had no true friends, not even one. He went to Calvary by Himself. Those dearest to Him turned away, even in His darkest hour. He implored Peter, John, and James to pray for Him in the Garden of Gethsemane because His soul was deeply grieved to the point of death, but instead they slept. (Mt. 26:38-45) He spent three and a half years ministering to Judas, but he betrayed Him with a kiss. (Mt. 26:49) Before the cross, all His disciples left and fled from Him. (Mt. 26:56) No one protected Him or defended Him before the courts of law. Even God turned away from Him on the cross as He crie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t. 27:46) Jesus knew loneliness. He suffered through it all for you, and promised,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20). Also, He said,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Jn. 14:18) Even though we despised Him and did not esteem Him, He still continued to love us, “I will never desert you, nor will I ever forsake you.” (Heb. 13:5)

My dear friend, Jesus Christ has carried our sorrows, so why then should we carry them? Please accept His comfort for your sorrow, and share this good news with other sorrowing ones. Today is the 3rd Sunday of Lent, so let us truly focus and come back to the love of Jesus. Amen. 

다음 주일 설교

슬픔의 사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3)



김성필 목사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슬픔을 겪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는 마지막 한숨을 내쉬며 생을 마감합니다. 출생과 죽음, 그 사이의 고뇌와 슬픔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은 많은 슬픔을 겪어 아파 했습니다. 성경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본 스스로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깊고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만큼 깊고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후 1:5)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불신자들과 달리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당한 경험은 예수님께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진실한 마음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1은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지가 보내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막 6:4) 여러분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거절당한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회롱했습니다. (마 27:41)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 15:29)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회롱당하고 거절당한 슬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며 또한 그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꿈이 좌절되거나 가정이 깨어질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

은 슬픔을 당할 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귀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큰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41~44은 말합니다. “가까이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슬픔을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4:16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장 깊은 슬픔을 주님께 가져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에 심한 가시를 느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9)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넘칩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은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고독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갈보리에 가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이 슬픔으로 죽게 되었으니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는 커녕 잠을 잤습니다. (마 26:38~45)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유다를 위해 사역하셨지만 그는 입맞춤으로써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마 26:49) 십자가를 지기 전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 26:56) 범접에 썼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셨을 때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시고 말았습니다. (마 27:46)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으며 또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8)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존경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5)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혼자 그 슬픔을 짊어지려 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슬픔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슬픈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오늘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그리스도의 교회
(에스겔 34:26)

내가 죽고 예수만 사시여!

사실 저는 요즘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도 주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더 나아가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면 나의 관심은 주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복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고 있었고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 2:13,14)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려는 복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됨과 화평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곳에 빨리 위치이 되는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를 맡겨주신 양무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원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재가 조장으로, 교사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들을 먹이기보다는 내 배만을 채우는 이스라엘 목자들과 같은 모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성령과 말씀을 예수님께 받아서 감당하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오던 내 경험과 습관으로 대충대충 섭기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고 구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절 34:16) 이제는 내 육신과 정욕만을 쫓던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시여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라은현(청년1부)

너는 왜 혼자서만 갖고 있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 되게 하여” 모태 신앙이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던 나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이 늘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나는 먼저 믿게 된 자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산 사면에 얼마만큼 복된 존재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

작년에 첫 단기선교를 준비하던 때였다.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시킬 생각이었지만 그 친구를 전도하지 못해 결국 타인의 소개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였다. ‘이토록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전도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니...’ 너무 부끄러웠다. 어릴 때부터 내 옆에는 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건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므로 이미 축복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신실 말씀이다. “지은아, 내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너에게 널리 전파하라고 준 복음을 너는 왜 혼자서만 갖고 있지?”

위임목사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 사면에 대해 설교하실 때는 순간 내가 교회 봉사중인 중등3부가 떠올랐다. 출석률이 저조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담임교사가 아니니까’라는 느긋한 마음과 함께 ‘예들이 학원 땀에 바쁜 걸 어쩌겠어, 친구관계에 문제 있으면 담임인 교회 오기 싫겠지.’라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이라 여기며 열심히 전도하지 않은 제 2기 발판하기만 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모습은 세상의 문화와 환경 앞에 맥없이 굴복한 것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교회 안과 밖에 꺼져가는 등불을 위해 기도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를 자라하기로 결심한다. 우리 교회 주변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 친구들, 선교지에만 난 영혼들과 교회 안의 모든 기관들이 “내 산 사면”이 되어 거룩한 환호를 외치며 영적 전령사로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김지은(집사, 11교구)

나는 철없던 한 마리 양!

올해 1차 청지기훈련을 받고 고백의 글을 쓴다. 한때 난 목자가 치는 울타리를 벗어난 철없는 어린 양이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기댈 곳 하나 없이 무섭고 약하고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을 모르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울타리 밖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의 진짜 목자 예수님이 “오리! 오! 할 때 빨리 오고” “다 내게 오리!”고 말씀하실 때 얼른 그 품에 으스러지도록 파고 안겨야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양임을 알았다. 그래서 내 이름이 “주인”이다. 주님 안에서 살라고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에 대한 재 값을 못했으니 난 또 죄를 지은 셈이다.

이렇게 저 맑은 어린 양을 언제든지 매번 용서해 주시고 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살고 있다. 주님께서 나의 보화를 깨내서 큰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한 불이 계속 불타오르도록 예수만만을 의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천령교회를 통해 이 죄인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주님의 축복이다. 구원의 복을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다. 우리 교회의 커다란 예배당이 3층까지 가득 채우고도 넘쳐나는 것을 보며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집에서 혼자부지 못하는 수 시간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와서 주님을 찬미하라고!

(이주인(중등1부))

사마리아 여인처럼

머칠 전이었다. 급한 걸음으로 비탈진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제 막 뿔뿔오르는 꽃망울을 마주하게 되었다. ‘찰라! 찬 이런 것인가! 굳었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눈을 들어 바라본 회청색 하늘 뒤편에는 나의 아바 아버지가 계시었다. “아아,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 감사 드립니다. 이 작은 한 송이의 꽃망울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만하다... 이 작은 꽃망울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쓰임받고 순종하는데...”’ 올케도 어쩔없이 새해는 시작되었고 하루하루는 주님의 감사의 나날이었다. 하지만 감사를 잊고 산 날이 더 많았고 바쁘고 곤한 삶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채 허둥거리고 있었다. 은혜의 단비가, 복된 장마비가 갈급했다. 청지기훈련 때마다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지금도 가슴 밑바닥에 살아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환화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렸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절 34:26) “그리스도의 교회”란 제목으로 천령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뿌려졌다. 교회는 신성이 있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신의 종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지만 일 내가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실 것이다. 미련스런 존재라 꼭 꼭녀에 물려서야 어찌지 못해 주님의 일을 대강만 해치우고는 내에게 일침이 되는 말씀이었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뿐만이 아닌 개인 내세워서 교회로서 주님께서는 천지만물 모든 것들을 그 무엇인가에 쓰여지도록 창조하셨다. 이는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무엇인가 할 것을 분별히 주셨다는 말씀이며, 우리의 출발은 거저씨에서 시작하지만 마침내 큰 나무로 자랄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단비를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힘입어 이루어 가게 하신다. 편견의 우산 속에 있을 때, 말씀을 사랑치 않을 때,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놓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나, 나의 모습이다. 지금의 내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이라 예리한 비수에 찔린 두 가슴이 아프진만 아니라.

자, 지금이다. 지금이아말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은혜의 단비를 갈구할 때이다. 저 지렁이 같은 아홉째의 작은 말씀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일어나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전하자.(사 41:14,15) 아들이 말한다. “엄마, 구원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은혜받았어!” “그래, 네 산 사면 모든 곳을 복되게 하거라!”

정경애(집사, 15교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산 사면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갑시다!

“맞아요! 맞아요!”

또 한 번의 자연유산의 아름다움을 겪으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위로하심과 놀라운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였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시간이 가는 대로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생구만 해도 스프레스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 당뇨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님을 회개와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므로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함께 살며 걸으라는 아닌 척했지만, 미워하면서 받았던 나의 스트레스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 청지기훈련 때 고난과 수치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지나간 나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선물이었음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했었다. 이번 청지기훈련 일정이 발표되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직장이 수원이라 7시까지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7시 10분에 도착하여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나를 통해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해 복된 장맛비를 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똑같은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살아가는 나의 생활을 돌아보며 변화된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임목사님은 그대로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영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라고 나는 맞장구 쳤다.

내 생각이 너무나 중요했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정말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음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각지 못하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 내가 가진 건강과 직장과 가정을 통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한다.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죄 중에서 죽으려나와 그 죄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골 3:20) 틈만 나면 올라오는 이 고난, 내가 하지 않고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할 수 있기를,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권정옥(집사, 16교구)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 받아요.” 청지기훈련을 앞두고 가족에게, 구역식구들에게 수차례 말을 했지만 정작 나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었다. 준비하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금요일 저녁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나의 마음은 무거웠고 주님께 죄송스러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위임목사님의 힘찬 말씀이 시작되면서 나의 마음은 깨지기 시작했다.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준비하신 말씀은 내 마음을 강하게 찔렀고, 32 페이지나 되는 예배순서지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청지기들이 수고를 했을까?’ 생각하니 말로만 “준비하자”고 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러기에 나는 마음을 다해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했다. 특히 교회의 개인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 붙중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시간이었다. 온 교회에 울려 퍼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죄인인 나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다가왔다. (사 41:14,15) 주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대, 나는 나 자신만의 권위로 만족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셨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품고 남보다 기도하며, 십자가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 힘을 것이다.

양영애(권사, 14교구)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심!

청지기훈련이 있기 전부터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저에게 다가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한없이 컸습니다. 언제나 바쁘고 분주했던 나를 돌아보게 하였고, 세상일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죄악에 물들어 있었는지 알게 하였고, 눈물로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고 나의 욕심 안에 주님을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의 온전한 믿음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더욱 청지기훈련을 기대하게 되었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훈련을 통해 주신 말씀(골 3:26)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복된 장맛비를 허락하셔서 겸손하고 거룩한 땅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있게 하신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총현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되어 산 사면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의 단비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훈련을 통해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갈 2:20)하게 하시니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길 기도합니다.

장종문(집사, 12교구)

주님의 은총이며 참 사랑이십니다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슴 한 칸에 슬픔의 가시가 박히는 계절

너무 죄가 많아 부끄러운 나

매운 밤들 속에 말고고 나의 죄를 향해 용서를 청하고 싶은 이 밤

은총의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날에 가장 아름다운 이 장소에

내게 오신 당신은 참 사랑이십니다.

당신 사랑 두 팔 벌려 한 안아 마음깊이 담아

겸손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은총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겸손의 마음으로 나누어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당신 만나뵈울 수 있는 이 시간 오시거늘

내가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떠한 정미의 회한을 내 목에 걸고

저기 저 성문 어귀에서 기다리는 흰 옷 입는 네 책을 만나 황혼의 길에 나와 돌아오려나...

내 사랑아! 내가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루비와 사파이어로 만든 보석반지를 네 손에 끼우고

우슬초에 사슴의 기를 붙여 영문 안으로 맞이하리니

네 슬픈 그 노래 눈물로 저 바다 물결에 띄워 보내고

십자가 종소리 울리거든

내 사랑아! 돌아오라 어서오라

내 맘 문 열어놓고 너를 기다리리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죄인 부르시니 참으로 은총이십니다.

은총 없이 죄인들 받은 달란트대로 정금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경희(집사, 1교구)

신교 랍합 선교위원회(지행분과)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선교를 돕는 손길

선교를 돕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직 한 영원에 집중하는 선교를 할 수 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유기체인 선교위원회의 지행분과 일꾼들의 땀에 젖은 소리를 들어보자.

선교위원회의 진행분과는?

팀 구성에서부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받는 사후평가까지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신국 장로, 진행분과장)

팀장 1명, 선교지 선정, 선교팀 신청 접수에 시작으로 1차 면담에서부터 4차 점검, 선교 후의 사후평가까지의 일을 관장합니다. (김태식 장로, 진행분과차장)

지행분과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평일이 나와서 1차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진 집사)

저도 1차 면담 팀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란 집사)

저는 A국 담당자입니다. 이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A국에 선교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성범 안수집사)

제가 담당하고 있는 B국도 선교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문영국 안수집사)

제가 담당하는 C국은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보혈로 종만한 주님의 고개가 세워지도록 더욱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김영만 안수집사)

1차 면담에 관한 제보사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 진행의 출발점인만큼 미비된 것이 없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최세진 안수집사)

저는 4차 점검과 사후평가를 담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미비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며, 선교지에서 돌아온 팀원의 사후평가를 통해서 다른 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희우 안수집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손길은?

매해 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직분인 저에게 매순간 말씀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큼니다. (고희란 집사)

정말로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도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세진 안수집사)

모든 공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통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송한진 안수집사)



매일 저를 깨뜨리는 주님의 은혜에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김영만 안수집사)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습니다.

(이희우 안수집사)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찬양대 봉사과 섹스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한진 집사)

선교에 참여해 할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하기 어렵다는 지역도 실제로 가 보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 큼니다. (이성범 안수집사)

지행분과는 선교를 준비하는 팀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희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선교단 4층에 위치한 선교위원회로 오셔서 선교에 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장로)

선교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하십시오. (송한진 안수집사)

영적으로 못전이 준비된 사람은 못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김신국 장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기도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세진 안수집사)

영혼을 살리는 선교에 한 사람의 반관자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희우 안수집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김태식 장로)

자기를 부인하며 성공적인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영만 안수집사)

단기선교를 통하여 부러진 복음의 씨앗들이 현지에서 주님의 교회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송한진 안수집사)

모든 성도가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성범 안수집사)

선교위원회의 진행분과는 선교 진행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다. 물론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아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한 영원에 집중할 수 있는 선교의 과정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고 있는 진행분과의 장영미 12명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

(편집)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믿음의 수납행정, 재정위원회

복음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의 재정위원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성도님들과 하나니게 드린 예물을 성실하게 다루어 계하고 있습니다. (마 10:38) 이를 위해서 재정위원들과 실행위원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일꾼들은 주일 아침 8시 전에 교회에 나와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때부터 시작되는 사역은 찬양예배 전까지 팀을 구성하여 실행조, 주일헌금, 찬양헌금, 선교헌금, 월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각종 절기헌금을 수납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조금의 오차와 실수가 없도록 저회들은 매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 섬기기 위해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택으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빌 2:4) 8개월 전부터는 예배안내와 차량안내를 담당하는 일꾼들과 같이 유니폼을 입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같은 정돈된 모습을 통하여 봉사하는 모습은 일꾼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께도 많은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문 1:20)

게 바쳐진 구비된 성서로는 물질이므로 모든 수납행정이 주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없이 정확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묵직으로 한다"라고 고쳐두어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들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재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썯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 6:19) 그럼에도 우리의 최선은 항상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하며 헌금을 드리기도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말 3:10)를 도적질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눅 12:42) 재정위원회를 섬기는 저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헌금 수납행정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나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7)

김광남(장로, 재정위원장)

2007년 제4차 CMTC 운영 (교육과정 : 2주간 정소 : 김필리움)

시 간	3월 4일(오늘)
18:10~18:40	제1강 사도행전의 선교
18:40~19:10	제2강 2007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향
시 간	3월 11일(다음 주일)
18:10~18:40	제3강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18:40~19:10	제4강 선교 사례 및 개선 사항

*2007년도 마지막 훈련이므로 전원 참석 요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4(월)~3월 1(월)	대학부 4팀	지규성
2월 24(월)~3월 1(월)	대학부 7팀	장경옥



새가족양육부 2월 수료자

가장 먼저, 예수님!

♥ 나와 동행하시고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예수님! 믿음생활을 하는 것과 친구를 하는 것이 기쁘고 부자라 된 것 같습니다. (한성일)

♥ 교회에 다니던 분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참만하고 따뜻한 분이시라 믿습니다. 양육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우며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미연)

♥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강과 사랑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로부터 받을 수 없는 편안함과 생활 속에서 인내와 사랑, 내 생각과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소윤)

♥ 양육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원임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김지훈)

♥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교회를 찾던 중 중원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요, 교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연)



♥ 언니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왔을 때 느낌이 좋아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대화 상대이신 예수님이 계시어서 좋습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린 후의 편안함이 종교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예숙)

♥ 아들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교회생활이 정말로 좋습니다. (이애자)

♥ 딸의 전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친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김정환)

♥ 신랑의 종이 안 좋아지면서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곁에서 언제나 저를 구원하며 아시는 분이여 저를 대신해 주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며 약해지지 않도록

교회생활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 예전부터 중원교회에 다니고 싶었지만 교회가 너무 크고 웅장해서 도저히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2년간 다니다가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 안으로 옮겨져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솔하신 하나님이며,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저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던 시간이 많았는데 교회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있어 좋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숙)

(정리 : 편집국)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2006년 6월, 중원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리던 날이 문득 떠오른다. 5분쯤 늦었을까? 찬송가를 부르는 순서에 들어갔다. 잠도 깨고 주신 뜨거운 성경책을 펴기도 전에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찬송가의 가사는 정확히 틀리지 않았지만 뜨거워진 가슴 속에는 곳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존속아! 왜 이리 늦게 왔니?' 아저,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내 나이 만 36세에 회장님 선고를 받았다.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암투병중에 가장 밑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고 직원들은 공금을 횡령하여 도망가 버렸다. 회사에 가장 중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외국 수출업체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고, 나를 가축처럼 여기며 물심양면으로 밀어주던 타국의 한 외국관이 갑자기 폐업으로 세상을 떠났다. 2006년에 이사가갈 계획으로 남산 아래 사투었던 고급빌라는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 경매로 헐값에 낙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곁에서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 모든 일들이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6년 한 해에 속박하게 돌아왔다. 절망적이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알기 전 나는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의욕 넘치는 젊은 사업가였다. 이 세상 모두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나의 의지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당연한 일이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물질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무 사랑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양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일들이 억울하게 생각되었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하고 올부었겠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후엔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왔다.

회장직에 대해서 열망이 없었던 것이었다. 모든 슬픈 드라마의 비극적 운명을 지닌 주인공은 거의 회장직으로 죽고 실제 주 수습도 받지 못하고 불행과 독사에 대부분 일 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무서운 징벌이다. 그러나 조기 발견이 어려움이 무서운 암을 난 우연히 발견했다. 그 과정은 사연이 길어 지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처음엔 우연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었다. 그 동안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던 문제들이 정말 기적처럼 하나, 기적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지금 난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어 종합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여 민간요법과 일반세포를 강하게 만들어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자연치유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치료비가 싸진 않지만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 격려하지 않는다. 사실 종합병원에서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 했는데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았다. 모든 분들과 애전보다 인연이 좋았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한다. 이것 외에도 지면을 통해 밝히지 못한 수많은 은혜들이 넘친다.

난 요즘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한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깊이 있고 격조 높은 언어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종심을 드리는 기도를 한다. "주여! 죄 많고 교만한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제 인생을 다 예비해두신 주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에 고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다 육신을 마감하는 것으로 제 인생을 예비해두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은 것을 주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깨닫지 못하고 제 자신이 뛰어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질병을 얻고 물질도 사라졌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질병과 고난을 얻었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비한 제 인생이 이것이 아니라면 주님 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모르고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어 저를 주님이 회복시키신 표징으로 삼아 주님 기쁘게 해 드리는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은선(2007년 2월, 새가족양육부 수료자)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8	마지우	19	고동부	최은희(12)	330	김지현	2	청년1부	인연(4)
299	홍혜민	1	청년2부	박철민(17)	331	김영희	2	청년1부	인연(4)
300	홍성기	3	청년1부	김월기(3)	332	최희광	12	청년2부	남계순(18)
301	류한남	3	청년2부	권호순(3)	333	윤희	19	외선부	윤노희(19)
302	오진숙	8	청년3부	원향민(17)	334	나타시	19	외선부	나영설(12)
303	강미영	8	청년1부	원영희(1)	335	김민배	3	청년3부	송희경(3)
304	김민정	3	청년2부	이은숙(1)	336	김정환	5	청년2부	노은영(18)
305	유재형	19	대학부	이영숙(18)	337	이희희	6	청년1부	김영국(13)
306	박영숙	17	청년3부	김성혜(9)	338	수정	19	외선부	박경숙(18)
307	김순심	16	고동부	김성혜(9)	339	김영희	17	청년1부	김정희(17)
308	김태현	1	청년1부	조영민(1)	340	박병은	19	청년1부	박민욱(6)
309	김영식	2	청년2부	김영선(2)	341	한영환	19	청년1부	성영진(1)
310	박지현	19	청년1부	이영희(15)	342	김미라	19	대학부	정현희(1)
311	남승현	19	청년1부	김월기(4)	343	김유리	19	대학부	조은영(18)
312	손영길	18	청년1부	선우희진(18)	344	박진주	19	청년1부	김영국(1)
313	노은희	17	청년2부		345	정유리	19	고동부	정재숙(13)
314	방주하	19	대학부	김월기(18)	346	황은희	14	청년1부	김정순(1)
315	정현미	2	청년2부	최희관(2)	347	이보희	7	애버나비	남은희(10)
316	김민희	19	청년1부	이은희(1)	348	권현진	1	청년1부	박재순(7)
317	신재현	18	소양부	최희진(18)	349	권현진	1	청년1부	황영국(7)
318	한범	1	청년2부	이은희(1)	350	권현진	1	청년1부	황영국(7)
319	유승기	1	청년1부	강호순(1)	351	박미경	2	청년1부	이진국(1)
320	김현희	16	소양부	정영숙(8)	352	이영진	19	청년1부	홍성미(1)
321	박효준	19	고동부	박영숙(13)	353	박효준	19	외선부	주은순(18)
322	김학수	11	청년1부	박영숙(1)	354	별게	19	외선부	정영숙(18)
323	황지현	18	청년2부		355	영단	19	외선부	이영숙(18)
324	최광자	16	청년2부	최희진(17)	356	정환	19	외선부	김영국(1)
325	김미정	8	청년2부	서은희(8)	357	비기	19	외선부	이규진(7)
326	이재현	19	대학부	이은희(14)	358	여기	19	외선부	정영숙(13)
327	송정희	19	대학부	김영희(3)	359	별도	19	외선부	조은영(18)
328	조혜진	19	대학부	박조은(18)	360	별게	19	외선부	
329	마지혜	12	청년2부	신은희(11)	361	류정은	19	청년1부	

* 중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설로 오시기 바랍니다.*

